

“한-아세안 FTA 추가 자유화 필요하다”

박대통령, 부산 특별정상회의 기조연설서 제안 “원산지 기준 복잡 기업 활용률 절반 수준 불과”

한국과 아세안(ASEAN·동남아국가연합)의 대화관계 수립 25주년을 기념하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가 11일 부산에서 개막한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은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 추가 자유화를 통해 비즈니스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의 첫 일정인 ‘CEO 서밋 기조연설’에서 “아세안은 아태지역 국가와의 양자 FTA를 통해 동아시아 지역통합을 이끌어왔다”며 이같이 제안했다.

3개 세션으로 진행된 이날 CEO 서밋은 ‘한-아세안의 새로운 도약, 혁신과 역동성’을 주제로 아세안 정부 인사와 기업인, 한국 대표 기업인 등 모두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연설에서 박 대통령은 “한국은 을 한해

만 중국과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베트남과 FTA를 타결하는 등 전 세계 GDP의 74%를 차지하는 나라들과 FTA를 타결했다”며 “그러나 안타깝게도 한-아세안 FTA는 한국 기업의 활용률이 다른 FTA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실질적 자유화율이 높지 않고 원산지 기준이 복잡한 것이 주된 이유”라며 “이런 점에서 이번에 양측이 무역원활화 등 여러 분야에서 한-아세안 FTA를 개선하기로 합의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또 “아울러 더 많은 기업들이 FTA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자유화와 원산지기준 개선이 뒤따라기를 기대한다”며 “양측 정부가 조속히 추가 협상에 나설 수 있도록 기업인 여러분이 지원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은 한-아세안 양측



박근혜 대통령과 베니그노 아키노 필리핀 대통령이 11일 오후 부산 해운대구 한 호텔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방안으로 ▲양측 중소기업이 글로벌 가치사슬에 원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하고 ▲양측 경제협력 범위를 에너지와 제조업 위주에서 서비스 분야로 확대하고자도 제안했다.

박 대통령은 기조연설에 이어 미얀마·인도네시아·라오스·태국·필리핀·싱가포

르 정상과 릴레이 정상회담을 하고 경제·통상 분야 실질협력 강화 방안과 양국관계 및 한반도 등 지역정세를 협의했다.

또 특별정상회의의 첫 공식일정으로 아세안 10개 회원국 정상들에게 환영만찬을 베풀었다.

이번 특별정상회의는 12일까지 계속된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윤장현 시장, 공무원 복지부동 질타

“시내버스 준공영제 등 현안 해결않고 뿔하니” 간부회의서 쓴소리

부드러운 리더십을 내세웠던 윤장현 광주시장이 이례적으로 시청 공무원 조직에 쓴소리를 쏟아냈다.

취임 초부터 지시한 사업들이 반년이 지나도록 변화가 없다며 시청 공무원들의 복지부동 행태를 강하게 질타한 것이다.

윤 시장은 11일 목요일간부회의에서 “행정에 들어와 보니 ‘TF 구성하겠다’, ‘위원회 만들겠다’, ‘적극 검토하겠다’ 등의 말을 자주 반복해서 듣는다. 그런데 계속 검토만하고 결정과 결단을 하지 않으면 시기를 놓치게 된다”고 지적했다.

윤 시장은 “광주 월드컵 경기장 시민 개방 등) 공간 공유도 취임 초부터 얘기했는데 6개월이 다 되도록 진전이 없고, 정율성 유지지나 차이나 프랜차이즈, 시내버스 준공영제도 계속 같은 얘기만 반복하고 있다”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특히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경

우 임금 결정을 어떤 시스템으로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평가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를 연구해서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언제까지 재방송만 하고 있을 것이냐. 이제는 결단을 해서 시민들이 변화와 혁신, 실행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윤 시장은 또 “광주와 나주 빛가람혁신도시간 대중교통 문제에 대해서도 시민들의 입장에서 접근해야 한다”면서 “언제의 이해에만 파묻히지 말고, 시민이 불편해 하는 것부터 당장 조치해야 한다. 안되면 시청 버스나 전세버스를 투입해서라도 혁신도시 출·퇴근자나 방문자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광주비엔날레와 관련해서도 “민낯을 들여다보니 문제가 많았다. 비엔날레를 포함해 15개 축제에 150여원을 투입했는데도 외지인들은 아직도 광주하면 떠오르는 축제가 없다고 한다. 선택과 집중을 통해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새누리 광주시당 ‘사랑의 연탄배달’ 새누리당 광주시당은 11일 주요 당직자 4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광주 남구 양림동 일대에서 독거노인 3가구를 대상으로 사랑의 연탄배달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새누리당 광주시당 제공>

갈수록 어려워진 세풍산단 개발

“책임분양·이자지급 보증 불가” 정현복시장, 광양경제청 요구거절

정현복 광양시장은 세풍산단 개발을 추진 중인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이 요구하는 책임분양 보증이나 이자지급 보증을 할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광양시는 11일 광양읍사무소에서 광양읍 사회단체장, 이장 등 주민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광양읍 현안사업 추진사항’에 대해 설명회를 개최했다.

정 시장은 이 자리에서 “세풍산단 개발 과정에서 광양경제청이 요구하는 책임분양 보증이나 이자지급 보증은 법령과 제도상 불가능하다”며 “특히 보증을 하게 되면 국가로부터 보조받는 지방교부세가 그 금액만큼 삭감되는 불이익이 있어 그만 큼 시민이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불가 입장을 밝혔다.

또 국가사업인 세풍산단 기능성 화학소재 클러스터 구축사업에 88억원, 외국인 부품소재 전용공단에 120억원, 하이퍼 플라스틱소재 연구기반사업에 60억원 등 총 268억원의 시비를 투자해야 하고, 작곡시장·하수도, 도로, 전기시설 등 기반시설 설치에 시비를 추가 투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광양=박영진기자 pyj4079@

정 시장은 이에 따라 “광양시가 세풍산단개발에 직접 참여하지 않고, 협조하지 않아 산단 개발을 못한다는 것은 오히려”며 “광양경제청 주도로 개발을 진행하고 시는 조기 분양될 수 있게 행·재정적 지원을 하겠다는 입장이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광양시는 지난해 10월 세풍산단개발 목적법인(SPC) 10% 출자 참여, 책임분양 보증 30% 등 참여를 위해 시가 용역절차를 거쳐 행정자치부에 투·융자 심사를 의뢰했다.

투·융자 심사결과 특수목적법인 방식 추진 필요성 재검토, 구체적 민간자본 유치방안 마련 및 민간자본에 대한 자치단체의 보증·책임분양시 재정부담이 없도록 계약조건에 명시해 재정정당이라는 재검토 의견이 받았다.

광양 경제청과 포스코건설, 미래에셋증권, 대한토지신탁, KB부동산신탁이 SP(특수목적법인)를 설립해 추진하는 세풍산단은 총 사업비 5219억원 중 3775억원의 PF자금 확보가 늦어지면서 지역민의 우려가 크다.

세풍산단은 광양읍 세풍리 일원 3.0㎢에 사업비 5219억원을 들여 전기 장비, 1차급속, 급속가공 등의 업종을 유치하기 위한 조성사업이다. /광양=박영진기자 pyj4079@

광주시-시의회 예산갈등 ‘2라운드’

시의회, 수영 다이빙 예산 삭감

광주시와 시의회가 올해 마지막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과 심의를 놓고 갈등을 겪고 있다.

수영 다이빙 예산은 내년 본예산에서 전액 삭감됐지만, 이번 추경에 다시 편성이 돼 의회가 불편한 속내를 감추지 않고 있다.

이에 반해 최근 1부리기로 승격된 광주FC 예산은 시의회가 나서 증액을 요구하고 나섰다. 시가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반대하는 등 이례적인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11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9일부터 진행된 체육U대회지원금에 대한 추경 예산안 심의를 열고 논란이 됐던 수영 다이빙 예산을 위한 우수선수 영입비 1억1000만원을 전액 삭감했다.

또한, 광주FC선수단 지원비 2억원은 증액 없이 예정위로 상정했다.

이에 따라 예정위에서 두 사업과 관련한 예산심사가 또 다시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반면, 시의회는 시가 광주FC 선수단 인건비로 편성된 2억원의 증액을 놓고 논란을 빚었다. /윤현석기자 chadol@

전남 귀어 매년 100여명씩 는다

자영업·회사원, 김·전복양식 도전

도시에서 자영업이나 사무직에 종사하던 40~50대들이 전남에 내려와 고소득 업종인 김, 전복 양식에 도전하는 귀어(歸漁) 사례가 매년 급증하고 있다.

베이지비움 세대의 은퇴, 불경기, 고소득 양식이 증가 등이 맞물리면서 도시민들의 이주가 늘어나 어촌이 활기를 띠고 있는 것이다.

11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해 전남지역 귀어가 수는 257호 540명에 달했다. /윤현석기자 chadol@

지난 2009년 47호(129명), 2010년 87호(208명), 2011년 117호(380명), 2012년 209호(457명) 등 매년 100여 명씩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해 전남에 내려온 이들을 업종별로 보면 해조류 양식 105호(41%), 패류 양식 84호(33%), 어선업 33호(13%), 기타 35호(13%) 등이다. 연령별로는 50대가 80호(31%)로 가장 많았고, 40대 65호(25%), 30대 53호(21%), 60대 33호(13%), 20대 14호(5%) 등이 뒤를 이었다. /윤현석기자 chadol@

당뇨병 환자도 부담없이 드실수 있는

천연설탕 토디팜 재거리

순수함을 간직한 청정지역 미안마의 자연산물

식약청 검역필 41762-14-002447J

단맛을 내는 "모든음식"에 사용하세요

천연설탕
자연산
100%

런칭 기념 2+1

• 시림 프리미엄(750g)	28,000원
• 시림 일반(750g)	22,000원
• 가루(1kg)	38,000원
• 고체(1kg)	36,000원
• 강황(500g)	15,000원

각종류별도/시림/가루/고체 • 무통장입금, 계좌이체 : 광주은행 040-121-698715 네이처코미

약으로 쓰이는 아자수액을 끓여 만든 오리지날 천연설탕 미안마 재거리

1. 낮은 당 수치로 당뇨병 및 고혈압 예방
2. 신경계와 심장에 좋음 / 피를 맑게 함
3. 낮은 열량 / 다이어트 효과
4. 기력회복 / 정력에 도움
5. 소화불량 / 변비예방
6. 다이어트 효과
5. 항암효과

건강 100세를 기원하는 천연식품기업

네이처코미

주문상담 1899-8752

광주광역시 동구 충장로 46번길 7-1 금양빌딩 603호 네이처코미